

· 나는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주의자이며, 항상 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 각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제대로 된 국가발전이 가능하다. 이제는 도로·건물 등 하드웨어 보다는 교육·의료·문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이 나와야 한다.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은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으로, 지방과 중앙이 함께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토론요지 ① - 기초생활권 발전시책 및 지방교육 활성화

· 시·군의 주체적 발전을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제는 지방분권의 실질적 확대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인 만큼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선진적인 제도로 평가하고 싶다. 향후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류화선 지역특위(과주시장)

· 지난해 지리산권 3개 도, 7개 시·군이 영호남 화합을 상징하는 사업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앞으로 7개 시·군이 협력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길 부탁한다 최중근 남원시장

· 지방분권은 잘 되어가고 있지만, 더 많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분권이 목적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분리되어 있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도 검토해야 한다 신도철 지역특위(숙대 경제학부 교수)

토론요지 ② -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발전 5개년 계획

· 지자체는 현재 지방재정의 심각한 악화로 자주재원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이 지방세 확충의 계기가 된 점을 환영한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로 지방의 자주재원이 확충되기를 기대한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 농어촌 학생 감소에 따른 농어촌 학교 통폐합이 지역주민 감소와 함께 결국에는 지역경제 기반식태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일률적인 농어촌 학교 통폐합은 전국 어디서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재고해야 한다 김영희 지역특위(전국주부교실 제주지부 회장)

· 광역경제권은 지자체간 협력이 중요하데, 우리나라는 협력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 광역경제권이 성공하려면, 권역별 대도시의 활력증대가 아주 중요하다. 또 투자의 방향도 H/W가 아닌 S/W로 확실히 전환해야 한다 홍철 지역특위(대구경북연구원장)



() 101
(6.9), 7 (9.4), (9)
(9.17~9.18)
9 5
() ()
) ()
) ()
() 5
(8.31) (9.21) 10
() ()
TP() () TP()

()
Team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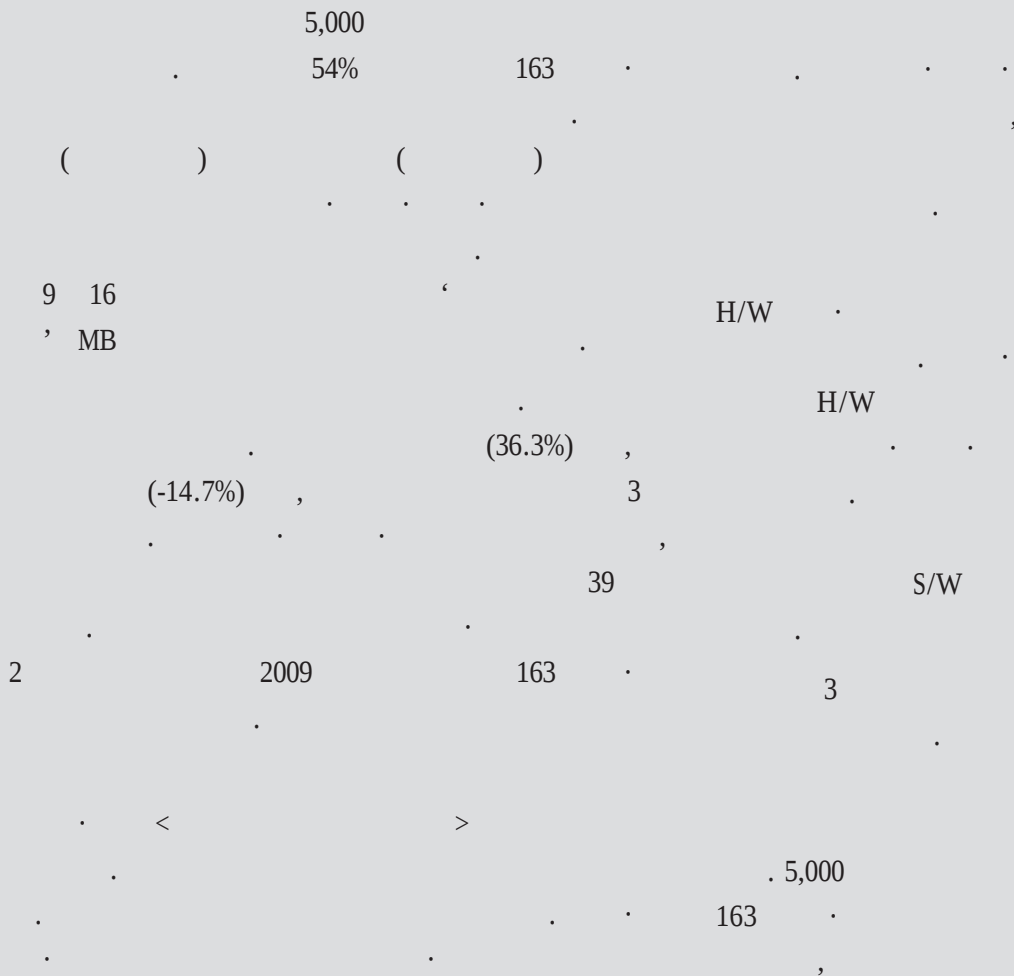


▲대경권 광역위원회 현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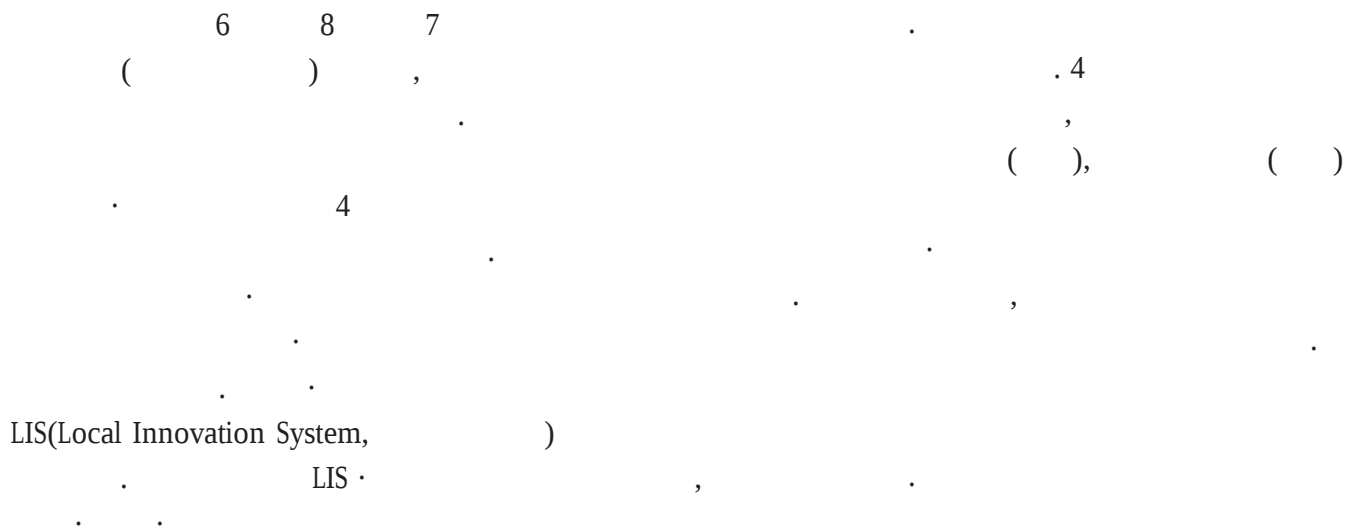
“市・郡

”

-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의 중요성 -



委



LIS(Local Innovation System,)

LIS

충청권

부여군, 굿뜨래 멜론 해외진출 탄력



▲부여 굿뜨래 멜론

9, () 11 40
2 18 180, 4
9 1 13.5
8 11
4, 10
4

보령시, 보령 돼지고기 세계화 다시 추진

9, , 100
2015, , 2000
2003
2010

동남권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창에 그린' 선정



9, , 35
35
2

대경권

경북, 동해안 10대 명품탐방로 조성

10 2010 2013
(527) (263 , 263) 1,044
5 (339.6) 125.8
10
, ' 2 , ' -50 *
, ' 2 , ' (Seagull,)
, ()

시 군	탐방로명
포항시	Ocean Renaissance 탐방로
	빛과 연인의 거리
경주시	문무대왕 호국탐방길
	감포 푸른 버룻길
영덕군	Eco-50 탐방로
	고래볼 가는 전통마을길
울진군	쪽빛바닷길
	불영 따라 나그네길
울릉군	Seagull 하포리운 Way
	나리 자드락길

▲동해안 블루로드 관광 탐방로 10선

강원권

중복규제 토지 이용가치 높인다

9 ‘2010 2 594.65
3,000 4

호남권

전남, 사계절 전지훈련장으로 각광



▲전지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남군 우슬경기장

9 145 2
7~8 2 7,328
15
1,337 , 46 6,397 256

목포시, 관광목포 콘텐츠로 빛낸다

9 2010 14
10~12m, 4~5m
12 1 3
, 2010 10 1

제주권

2012 세계자연보존총회 유치 서명 110만 돌파

2012 5 (WCC, World Conservation Congress) 100
9 7 29
110 38 2,000 , 72 1,500 , 450
130

〈 09년 분기별 집행실적 및 계획 _주요사업비 기준〉

(단위:조원)

		〈 09년 분기별 집행실적 및 계획 _주요사업비 기준〉					(단위:조원)	
			1/4 (실적)	2/4 (실적)	3/4	4/4	합 계	
14	9	2	당초 계획 (a)	83.6	87.9	43.6	57.7	272.8
8			수정 계획 (b)	83.6	87.9	53~55	45~47	272.8
3/4		. 8						
		, 199.3		194.8	4.5			
			4	59.5		53.2		
6.3	(111.8%)				3/4	4/4		
10~12								

1

9 2011 2 66 1,617

‘ 1 ,

-IPTV

() FTTH

()

,

,

TF

(two-track)

2009 9 11

10 9

지 역	합승 도시	기초 지자체	'01	'02	'03	'04	'05	'06	'07
서울	7	25	-	-	-	관악구	양천구 성북구	영등포구	강동구 강서구 마포구
부산	3	16	-	해운대구	-	-	-	연제구	사상구
대구	2	8	-	-	-	-	달서구 동구	-	-
인천	3	10	-	-	연수구	-	부평구	남 구	-
광주	3	5	-	-	-	-	남 구	동 구 광산구	-
울산	2	5	-	-	-	-	-	울주군	중구
경기	11	31	광명시	부천시	-	이천시	수원시 구리시	안산시 옹진시 시흥시 평택시	과천시 안양시
충남	7	16	-	-	-	금산군	부여군	태산군 아산시 서산시	천안시 서천군
충북	4	12	-	-	-	청주시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	-
충남	7	16	-	-	-	금산군	부여군	태산군 아산시 서산시	천안시 서천군
전북	7	14	진안군	-	-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군산시
전남	7	22	-	-	순천시	목포시 (신안무안)	-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강진군 영암군
경북	4	23	-	-	안동시	칠곡군	-	-	구미시 경산시
경남	8	20	-	-	거창군	창원시	김해시 남해군	양산시 하동군	진주시 통영시
제주	2	0	-	제주시	서귀포시	-	-	-	-
합 계	76개	230개	3	3	5	8	14	24	19

2010

9

‘ 2010

3 ' 2009
5 600

3
 201 , 337 ,
 244 (7)
 . ' 2010

, 2 '
 ,
 , (topokki.
 o.kr)



▲ 2009 떡볶이페스티벌 포스터와 캐릭터

2009

9 11 900

市 VS 市

- 유바리市, 스키장·리조트 등 무분별한 과잉투자
- 오타루市, 운하·창고 등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

1980~90년대, 일본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며, 특히 수도권과 동북 지방의 도시들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지방 도시들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기초생활권'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지방 도시들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타루市는 운하와 창고를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1910년대부터 시작된 운하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타루市는 1910년대부터 운하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해왔으며, 이는 1980~90년대까지도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운하 주변의 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오타루市는 1990년대 후반부터 운하와 창고를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1910년대부터 시작된 운하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타루市는 1910년대부터 운하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해왔으며, 이는 1980~90년대까지도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운하 주변의 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오타루市는 1990년대 후반부터 운하와 창고를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1910년대부터 시작된 운하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타루市는 1910년대부터 운하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해왔으며, 이는 1980~90년대까지도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운하 주변의 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오타루市는 1990년대 후반부터 운하와 창고를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1910년대부터 시작된 운하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타루市는 1910년대부터 운하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해왔으며, 이는 1980~90년대까지도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운하 주변의 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오타루 운하의 창고들



▲오타루에 위치한 창고를 개조한 고급 레스토랑